

이달의 초점

한국의 사회이동성

사회이동성에 대한 국민인식과 시사점

| 장윤선, 김태완 |

소득이동통계를 이용한 사회이동성 진단

| 권신정 |

자산이동성에 대한 탐색적 분석과 함의

| 이주미 |

일자리 이동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 고용 형태를 중심으로

| 임완섭 |

세대 간 사회적 관계의 이동성 분석

| 김기태 |



소득이동통계를 이용한 사회이동성 진단¹⁾

Social Mobility in Korea: Evidence from Income Mobility Statistics

권신정 국가데이터연구원 데이터방법연구실 주무관

이 글에서는 국가데이터처의 소득이동통계 연령 기준을 생애주기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균등화 소득 기준의 빈곤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청년층(15~34세)의 이동성이 가장 높았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동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때 청년층에서는 여자의 하향 이동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 격차는 이후 연령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2017~2022년 균등화 소득 기준 분석 결과, 빈곤탈출률과 빈곤진입률이 모두 감소하였다. 또한 '빈곤→차상위층 이동'보다 '차상위→빈곤층' 이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분석 기간 동안 노년층(65세 이상)에서는 빈곤탈출률은 줄어들고, 진입률은 증가하였는데, 특히 여자 노년층의 경우 남자보다 더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종단 분석을 통한 소득 변화와 계층 이동을 추적하는 동태적 관점의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1 들어가며

최근 사회이동성과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확대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개인의 소득 변화를 시간의 흐름 속에서 파악

하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 이동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기존의 횡단면 통계에 기반한 소득분배지표는 특정 시점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개인의 소득 변화를 시간에 따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

1) 이 글은 김태완, 김기태, 김문길, 임완섭, 이주미, 조보배, 장윤선, 김한나, 박형준, 윤상용, 이석민, 권신정, 김우성. (2025). 한국의 사회이동성 진단과 사회정책 개편방향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장을 요약, 발췌하여 작성한 것이다.

기 위해 행정 자료를 연계한 소득이동통계 데이터를 구축하였고, 2024년 12월 처음으로 소득이동통계를 공표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 단위의 소득 변화를 종단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소득이동통계의 기초데이터는 국가데이터처의 등록센서스로부터 추출한 표본(개인 및 가구)을 기반으로 국세청에서 입수한 소득 자료를 결합하여 종단 형태로 구축한 자료이다. 먼저 소득이동통계 표본 설계를 살펴보면 조사 모집단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일반가구 및 개인으로 집단가구와 외국인 가구 등은 제외된다. 2017년 기준 등록센서스를 표본 추출틀로 하여 가구 단위로 20%의 표본이 추출되었는데, 이는 약 1029만 명(2017년 기준)에 달하는 대규모 표본이다.

소득 데이터 구축에는 국세청의 연간 소득명세서 자료가 이용되었다. 현재 구축된 소득 범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다.²⁾ 이 중 소득이동통계 작성 시에는 근로 및 사업소득을 소득 기준으로, 두 개의 비교 연도 모두 소득이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 외에도 소득이동통계에서 중요한 작성 기준 중 하나는 소득분위이다. 소득분위는 작성 대상 인구의 소득을 5개 분위로 구분한 것으로(최하위 20%가 1분위, 최상위 20%가 5분위), 소득분위의 상향과 하향 이동 비율을 통해 전체 소득이동성을 산출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소득이동통계는 기존 거시 수준의 통계를 넘어

개인 단위의 미시적 종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진다. 향후 소득 범위 및 분석 대상의 확장을 통해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도 소득이동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 가치가 크다.

이 글에서는 해당 통계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고, 공식 통계에서 발표되지 않은 심층 분석을 통해 사회이동성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소득이동통계 공표 결과 및 심층 분석

소득이동통계는 매년 공표되는 국가데이터처의 공식 통계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2024년 공표된 ‘2017년~2022년 소득이동통계’의 주요 결과를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이어지는 ‘다’, ‘라’ 절에서는 공식 통계에서 사용한 연령대 구간과 소득 기준을 확장하여 심층 분석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성·연령에 따른 취약계층을 확인하고,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가. 상대적 소득이동성(2017~2022년)

2022년 기준 전년 대비 소득분위가 이동한 비율은 34.9%, 분위를 유지한 비율은 65.1%로 나타났다. 상향 이동은 17.6%, 하향 이동은 17.4%로 나

2) 국세청 이외 기관의 정보가 필요한 ‘사회부조급여’, ‘공적연금소득’ 등은 제외되었다.

타났다. 시계열적으로 보면 소득이동성은 2020년 증가 이후 다소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상향 이동은 비슷하고 하향 이동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시기별 외부 충격과 노

[표 1] 소득이동성 추이(2017~2022년)

(단위: %)

시기	유지	소득이동(A+B)	이동	
			상향 이동(A)	하향 이동(B)
2017→18년	64.2	35.8	18.1	17.7
2018→19년	64.5	35.5	18.0	17.5
2019→20년	64.2	35.8	18.2	17.6
2020→21년	65.0	35.0	17.6	17.4
2021→22년	65.1	34.9	17.6	17.4

출처: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 결과"[보도자료],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2024. 12. 17.

[표 2] 소득분위별 이동 비율(2021→2022년)

(단위: %)

2021년 \ 2022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합계	상향	유지	하향
	1분위	69.1	21.2	7.1	2.1	0.5			
2분위	21.3	49.9	20.7	7.1	1.1	100.0	28.8	49.9	21.3
3분위	6.5	20.7	54.7	15.8	2.3	100.0	18.0	54.7	27.2
4분위	2.3	6.6	15.3	65.6	10.2	100.0	10.2	65.6	24.2
5분위	0.8	1.5	2.2	9.5	86.0	100.0	-	86.0	14.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7.6	65.1	17.4

출처: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 결과"[보도자료],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2024. 12. 17.

[표 3] 성·연령대별 소득분위 이동비율(2021→2022년)

(단위: %)

구분	남자				여자			
	남자 전체	15~39세	40~64세	65세 이상	여자 전체	15~39세	40~64세	65세 이상
소득이동(A+B)	34.0	39.5	31.0	30.0	36.0	42.6	33.8	20.7
상향 이동(A)	17.2	22.9	14.3	11.7	18.0	23.1	15.9	8.1
하향 이동(B)	16.8	16.6	16.6	18.4	18.0	19.5	17.9	12.6

출처: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 결과"[보도자료],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2024. 12. 17.

동시장 변동이 이동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소득분위별로는 2분위와 3분위에서 이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고, 1분위와 5분위에서는 유지 비율이 높다. 이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 동일 계층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여 준다. 성별, 연령별 세분화 결과 여자와 15~39세의 이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올은 지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1분위에 오래 머물수록 해당 분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의미로, 저소득 상태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특성을 보여 준다.

연령대별로는 15~39세의 탈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65세 이상은 저소득 상태에 머무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저소득 상태에 오래 머무르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나. 소득 1분위 지속성(2017년~2022년)

2017년 소득 1분위에 속한 사람 중 2022년까지 1분위를 탈출한 사람은 68.7%, 남아 있는 사람은 31.3%였다. 1분위에 속한 사람 중 탈출하는 비

다. 개인소득 기준 소득이동성

기준에 공표된 소득이동통계는 연령대를 15~39세, 40~64세,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이 절에서는 생애주기 전환 시점을 반영하여 이를 청

[표 4] 2017년 소득 1분위 지속 기간별 비율(2017~2022년)

(단위: %)

구분		1년 (2017년)	2년 (2018년)	3년 (2019년)	4년 (2020년)	5년 (2021년)	6년 (2022년)
전체	전체(15세 이상)	100.0	67.7	52.2	42.4	35.9	31.3
	15~39세	100.0	60.5	40.9	28.8	20.6	15.2
	40~64세	100.0	70.9	57.5	48.7	43.0	38.6
	65세 이상	100.0	90.2	86.2	83.5	81.9	80.6
남자	전체(15세 이상)	100.0	62.6	46.0	36.1	30.1	26.1
	15~39세	100.0	55.4	34.5	22.5	15.2	10.9
	40~64세	100.0	67.3	54.2	45.8	40.6	36.6
	65세 이상	100.0	85.5	80.2	76.7	74.6	73.0
여자	전체(15세 이상)	100.0	71.4	56.6	46.9	40.0	35.0
	15~39세	100.0	64.8	46.2	34.1	25.2	18.9
	40~64세	100.0	73.1	59.6	50.5	44.4	39.8
	65세 이상	100.0	93.1	89.8	87.7	86.5	85.3

출처: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 결과" [보도자료],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2024. 12. 17.

년층(15~34세), 장년층(35~49세), 중고령층(50~64세), 노년층(65세 이상)으로 재구분하였다. 청년층은 노동시장 진입과 결혼·출산, 장년층은 사회적 지위 달성, 중고령층은 은퇴, 노년층은 사회활동 감소와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이동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여 청년층의 소득이동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년층에서는 이동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청년층에서는 상향 이동 비율이 하향 이동 비율보다 높았으나, 장년층에 접어들면서 하향 이동 비율이 상향 이동 비율보다 더 높아

지고, 상·하향 이동 간 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노동시장 내 위치 변화 및 소득 상승 기회 제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성별로 보면 청년층에서는 남자의 상향 이동 비율이 높은 반면 여자는 하향 이동 비율이 높았다. 청년 여자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경험하거나, 결혼·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가능성과도 일정 부분 관련될 수 있는데, 경력단절 경험에 따른 고용 격차는 지역별 고용조사와 같은 횡단면 통계 분석(정경윤, 2026)에서도 드러난다. 소득분위 유지 비율과 소

[표 5] 성·연령대별 소득분위 이동 비율(2021→2022년)

(단위: %)

구분	청년층(15~34세)		장년층(35~49세)		중고령층(50~64세)		노년층(65세 이상)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전체(A+B)	42.5	43.9	30.0	35.1	32.4	33.8	30.0	20.7
상향 이동(A)	25.6	24.3	14.7	17.4	14.5	15.3	11.7	8.1
하향 이동(B)	16.8	19.6	15.2	17.7	17.9	18.5	18.4	12.6

출처: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 결과"[보도자료],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2024. 12. 17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표 6] 성·연령대별 소득분위 유지 비율(2021→2022년)

(단위: %)

구분	청년층(15~34세)		장년층(35~49세)		중고령층(50~64세)		노년층(65세 이상)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분위	11.5	15.8	4.7	13.5	7.9	17.0	28.1	53.3
2분위	7.6	9.1	6.2	10.6	9.4	15.4	13.7	16.2
3분위	8.5	12.3	6.5	13.6	9.3	17.2	15.5	7.0
4분위	18.8	13.4	17.0	12.0	13.1	8.6	7.0	1.6
5분위	11.1	5.4	35.8	15.2	27.9	8.0	5.7	1.2

출처: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 결과"[보도자료],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2024. 12. 17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표 기] 성·연령대별 소득분위 구성비(2022년)

(단위: %)

구분	청년층 (15~34세)		장년층 (35~49세)		중고령층 (50~64세)		노년층 (65세 이상)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분위	17.3	23.7	8.4	20.4	12.9	25.0	35.7	61.0
2분위	18.5	22.9	12.6	21.4	17.6	27.3	24.0	24.9
3분위	19.9	24.9	13.5	22.8	17.6	26.0	22.9	10.0
4분위	29.1	20.9	25.2	17.8	20.8	12.6	10.6	2.6
5분위	15.1	7.5	40.3	17.7	31.1	9.1	6.9	1.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 결과"[보도자료],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2024. 12. 17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득분위 구성 비율에서도 성별로 차이가 두드러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 시기의 높은 하향 이동성이 생애 주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남자는 청년층부터 중고령층까지 상대적으로 상위 분위 유지 비율이 높고, 여자는 하위 분위 유지 비율이 높았다. 특히 여자는 노년층에서 1분위 유지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처럼 성·연령대별 소득이동성, 소득분위 유지 비율, 소득분위 구성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구조적 취약계층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활발한 이동성을 보이는 청년층이지만, 이 시기의 여자는 높은 하향 이동을 경험한다. 이동성이 경직되는 노년층에서 여자는 상대적으로 하향 이동성, 하위분위 집중도, 유지 비율이 높은 고착화 양상을 보인다.

라. 균등화소득 기준 소득이동성

균등화소득(Equalised household income)

은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 차이를 반영하여 가구 단위의 특성을 개인 단위로 환산한 소득 개념이다. 이는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소득으로, 개인소득이 낮더라도 다른 가구원의 소득으로 생활이 보전되어 빈곤층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균등화소득을 통해 실질적 생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빈곤 진입 및 탈출 등 사회정책과 관련된 분석에는 균등화소득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이번 분석에서는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중위소득 기준 4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는데, 이중 '중위소득의 50% 미만' 집단은 균등화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의 소득을 의미하는 상대적 빈곤선 개념과 연결된다. 또한 가구 경제생활과의 관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 및 사업소득이 아니라 소득이동통계 데이터의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22년 계층이 이동한 비율은 28.0%,

유지된 비율은 72.0%로 나타났다. 상향 이동 14.2%, 하향 이동 13.8%로 상향 이동이 소폭 높았다. 이는 개인소득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구 단위에서는 계층 이동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임을 보여 준다. 계층별로 보면 빈곤층과 상위층은 유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차상위층은 다른 계층으로의 이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차상위층에서 계층 간 이동이 비교적 활발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층별 소득이동성 분석 시 빈곤 진입·탈출률³⁾뿐만 아니

라 차상위층 이동성 역시 주요 지표로 함께 비교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연도별 변화를 보면 빈곤탈출률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빈곤진입률은 2020년에 크게 증가한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기별로 빈곤층 유입과 탈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지만, 시간이 갈수록 빈곤층에서 벗어나는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고착화 경향을 보여 준다. 빈곤층에서 차상위층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2019년

[표 8] 균등화 시장소득 계층별 이동 분포(2021→2022년)

(단위: %)

2021년	2022년					합계	상향	유지	하향
	중위소득 50% 미만	중위소득 50~75%	중위소득 75~150%	중위소득 150% 이상	합계				
중위소득 50% 미만	23.5	3.0	2.4	0.5	29.5	14.2	72.0	13.8	
중위소득 50~75%	2.7	3.8	3.3	0.4	10.2				
중위소득 75~150%	2.4	2.9	18.9	4.6	28.7				
중위소득 150% 이상	0.8	0.5	4.5	25.9	31.6				
합계	29.4	10.2	29.1	31.4	100.0				

출처: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 결과"[보도자료],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2024. 12. 17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표 9] 균등화 시장소득 계층별 이동 비율(2021→2022년)

(단위: %)

2021년	2022년					합계	상향	유지	하향
	중위소득 50% 미만	중위소득 50~75%	중위소득 75~150%	중위소득 150% 이상	합계				
중위소득 50% 미만	79.7	10.2	8.2	1.8	100.0	20.3	79.7	0.0	
중위소득 50~75%	26.9	37.1	32.2	3.8	100.0	36.1	37.1	26.9	
중위소득 75~150%	8.3	10.2	65.6	16.0	100.0	16.0	65.6	18.5	
중위소득 150% 이상	2.4	1.5	14.3	81.8	100.0	0.0	81.8	18.2	

출처: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 결과"[보도자료],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2024. 12. 17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3) 빈곤탈출률은 전년도 빈곤층 가운데 당해 연도에 빈곤을 탈출한 비율을, 빈곤진입률은 전년도 비빈곤층 가운데 당해 연도에 빈곤층으로 새로 진입한 비율을 의미한다.

이후 감소하다가 2022년에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같은 시기에 빈곤탈출률이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빈곤층에서 차상위층으로의 이동은 일부 증가하였으나, 그보다 높은 계층으로의 이동은 제한적으로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즉 빈곤층의 이동이 상위 계층보다는 인접한 계층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빈곤층에서 차상위층으로 이동하는 비율보다 차상위층에서 빈곤층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곤탈출률이 낮아진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빈곤진입률과 차상위층에서 빈곤층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모두 높았다. 이는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노년층이라면 빈곤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 준다.

성별로는 빈곤탈출률은 여자가 더 낮고, 빈곤진입률은 여자가 더 높았다. 차상위층으로의 이동 비율 역시 여자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저소득 상태에서 벗어나는 비율이 낮고, 빈곤 상태

[표 10] 빈곤 진입·탈출률, 차상위층↔빈곤층 이동 비율(2017~2022년)

(단위: %)

구분	빈곤층 ↔ 비빈곤층		빈곤층 ↔ 차상위층	
	빈곤탈출률	빈곤진입률	빈곤→차상위 이동률	차상위→빈곤 이동률
2017→18년	21.6	9.0	10.5	27.9
2018→19년	21.7	8.8	10.8	27.0
2019→20년	21.2	9.4	10.4	28.0
2020→21년	20.7	9.0	10.1	28.0
2021→22년	20.3	8.3	10.2	26.9

출처: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 결과"[보도자료],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2024. 12. 17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표 11] 빈곤 진입·탈출률, 차상위층↔빈곤층 이동 비율(2021년→2022년): 성별 구분

(단위: %)

구분	빈곤층 ↔ 비빈곤층				빈곤층 ↔ 차상위층			
	빈곤탈출률		빈곤진입률		빈곤→차상위 이동률		차상위→빈곤 이동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체	21.3	19.4	7.9	8.7	10.7	9.7	26.7	27.0
청년층(15~34세)	34.2	33.8	7.8	8.0	14.9	14.8	24.4	24.4
장년층(35~49세)	25.6	24.8	6.2	6.6	13.0	12.8	25.7	25.2
중고령층(50~64세)	22.9	21.7	7.8	9.6	11.8	11.3	26.8	27.6
노년층(65세 이상)	9.6	8.7	16.2	17.2	5.5	4.6	32.5	33.5

출처: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 결과"[보도자료],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2024. 12. 17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분석.

에 머무르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3 나가며

이 글에서는 국가데이터처 소득이동통계를 바탕으로 생애주기 전환 시점을 고려하여 연령 구간을 세분화하고, 균등화소득 기준으로 구분한 분석 결과를 다루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저소득 상태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해당 분위에서 벗어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곤탈출률은 낮아지고 빈곤 진입 가능성은 높아지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여자의 빈곤탈출률이 낮고 빈곤진입률이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여자가 취약한 양상이 확인되었다.

특히 연령과 성별을 함께 고려할 경우 청년층에서는 남자에 비해 여자의 하향 이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장년층 이후에는 여자의 하위 분위 유지 비율이 높아지고, 노년층에서는 저소득 상태에 머무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동이 집단별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청년기에 나타난 성별 소득격차가 이후 연령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이동성을 이해하고, 나아가 빈곤 진입을 예방하고 탈출을 촉진하는 데 특정 시점의 횡단면 분석뿐 아니라 종단 분석을 통해 동태적 관점으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연령과

성별에 따라 상이한 이동 양상이 나타나고, 취약 집단이 선명해지기 때문에 향후 정책 설계 시 이러한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2024. 12. 17.).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 결과** [보도자료].
- 정경윤. (2026). 고용률 너머의 불평등: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질적 격차 분석-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를 중심으로. **이슈페이퍼, 2026(4)**.

Social Mobility in Korea: Evidence from Income Mobility Statistics

Kwon, Shinjeong

(Data and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This study uses the Ministry of Data and Statistics' income mobility statistics to further disaggregate age groups according to life-cycle stages and to conduct a poverty analysis based on equivalised household income. Mobility was highest among youth and young adults aged 15–34, and a clear pattern emerged in which mobility declined with age. Among this group, women showed a higher rate of downward mobility than men, suggesting that this gender gap may be associated with disparities observed in later life stages. The overall analysis based on equivalised household income for 2017–2022 showed that both the poverty exit rate and the poverty entry rate declined. In addition, the rate of transition from the near-poor group into poverty was higher than that from poverty into the near-poor group. Among older adults aged 65 and older, the poverty exit rate declined while the poverty entry rate increased over the period. Older women appeared particularly vulnerable compared with older men.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ed for policy design informed by a dynamic perspective that tracks income changes and mobility across income groups through longitudinal analysis.